

« 가자 출신 재한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

“트럼프의 ‘가자 계획’은 우리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의 ‘가자 계획’은 실상 식민 통치와 인종청소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일부인 트럼프의 가자 ‘평화이사회’ 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른바 ‘평화이사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땅을 빼앗기 위한 청사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쿠데타였습니다. 국제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치밀하고 계산된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그 설계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도발하듯 대사관을 이전했던 바로 그 행정부입니다. 그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 그 첫걸음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은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였습니다. 그들은 UNRWA의 모든 재정을 끊었습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조직을 공격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UNRWA는 단순한 구호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UNRWA는 우리의 귀환권이 제도적으로 살아 숨 쉬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를 증언하며, 유엔 결의로 보장된 난민의 지위를 기록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지구의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가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잊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이사회’는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UNRWA를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 철거였습니다. 그들은 전쟁범죄를 조사하려 한 국제형사재판소를 공격했고, 유엔을 조롱하며 국제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의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우리의 권리를 지탱해 온 국제적 정당성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법을 힘으로 대체하고, 유엔 결의를 일방적인 강대국의 명령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쿠데타였습니다. 첫째, 우리를 보호해 온 국제적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것. 둘째, 우리의 영구적 종속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

그들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자선과 부스러기만 남기는 새로운 ‘현실’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의를 묻어버리는 데 세계 전체를 공범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법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이사회도, 어떤 거래도, 그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2026년 2월 5일

논평 보기



[논평] 이재명 정부는 기어코 손에 팔레스타인인들의 피를 묻히려 하는가? 트럼프의 가자 ‘평화이사회’ 참가말라! (1월 22일)

웹사이트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117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 2월 21일(토) 오후 2시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문의: 010-2546-5560

“Trump’s ‘Gaza Plan’ Seeks to Erase Our Existence”

The so-called Gaza Plan is nothing less than a project of colonial rule and ethnic cleansing.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joining the “Board of Peace,” a part of Trump’s Gaza Plan. We urge you to listen to the voices of Palestinians who stand against the occupation.

Let me tell you about the true intention behind that so-called “Board of Peace.” It was not just a map to steal our land. It was the opening move in a coup. A calculated, political coup against the very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Look at the architects: The same administration that recognized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that moved its embassy in a parade of provocation. Then they unveiled their “vision.” But the first target was not the negotiating table. It was UNRWA. They cut all funding, launched a slander campaign, and tried to dismantle it. Why?

Because UNRWA is not just an aid agency. It is the living, institutional embodiment of our right of return. It carries the witness of our history, the names of our villages, the status of our refugees—a status guaranteed by United Nations resolutions.

They wanted to erase that witness. To make the world forget that we are not just “humanitarian cases” in Gaza, but a people with a legal claim, with a right that persists.

Their “Board of Peace” was the blueprint; dismantling UNRWA was the first demolition. They attack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en it dared to investigate war crimes. They ridiculed the United Nations.

The intention was clear: to destroy the entir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egitimacy that has, for decades, however weakly, upheld our rights. They sought to replace law with power, to replace UN resolutions with unilateral American and Israeli dictates.

So you see, it was a two-part coup. First, demolish the international pillars that protect us. Second, impose a deal that legalizes our permanent subjugation. They wanted to make the world complicit in burying the Palestinian cause under a new “reality,” where Israel takes everything it wants, and we are left with nothing but charity and crumbs. They sought not peace, but the silencing of the law.

Our right is not charity. It is justice. And no board, no deal, can board up that truth forever.

5th Feb. 2026

Read



[Statement] No to Participation in Trump’s Gaza “Board of Peace”!
(Jan. 22)

websit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Palestine solidarity activities

117th Palestine Solidarity Protest | 21st Feb.(Sat) 2pm | Seoul Kyobo Bookstore, Gwanghwamun

Contact: people.freepalestine@gmail.com